

特 輯

1960年의 圖書館界

1960년의 도서관직 교육

이 재 철

최근 수년전 이래 엿보이기 시작한 도서관계 및 도서관계의 광복할만한 질적 향상의 기운은 이의 원동력이 되는 도서관직 문직사서의 교육에서 연유하였다고 생각된다. 4년전 (1957년)에 창설을 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교 및 도서관학과를 비롯해서, 작년(1959년)에 설치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와, 그리고 최근 수년간의 해외유학생의 귀국등은 우리나라 도서관계 및 도서관학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본다. 여기 이들 교육기관에서 지난 1년간 밝아 온 발자취를 더듬어 그 수취를 거둬 보기로 한다.

A. 현직 도서관원의 교육

I.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교 1년 특수과정

1957—1959년도간에 있었던 현직 도서관원을 위한 1년특수과정은 동대학교 학부과정(문과대학 도서관학과) 학생이 금년도에 4학년생으로 올라옴에 따라 예정대로 제3기생을 마지막으로 (금년 3월에)없어지게 되었다. 그간에 배출한 동과정 출

업생은 아래와 같다.

제 1기(1957년도)	14명
제 2기(1958년도)	15명
제 3기(1959년도)	31명
계 60명	

동과정의 입학자격은 대학정도의 학력을 가진자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였는데 그중 대학졸업자(학사학위) 이상의 입학자가 1기생에 5명, 2기생에 6명, 3기생에 21명으로 대학졸업자의 도서관 진출이 해마다 늘어감을 알 수 있다.

II. 동교 토요일 특수과정

전기한 특수과정이 없어지게 되자 많은 현직도서관원으로부터 동과정의 연장을 요청해 왔다. 이의 대안으로 설치케 된 것이 이 토요일과정이다. 이과정은 현직 도서관의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차린 과정으로 학과목단위의 학점제로 되어 있다. 현직도서관원의 시간관계상 자기가 집무하고 있는, 또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학과목만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이 과정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인 바 계

속해서 30학점을 이수하던 앞서말한 1년 특수과정과 똑같은 자격의 수료장을 수여하게 되어 있다. 금년도에 차렸던 학과목은 1학기에 「분류와 편목입문」(3학점), 「도서관운영법」(2학점), 2학기에 「분류와 주제명작업」(2학점), 「기술목록법」(3학점), 「도서선택법」(2학점)인데 30학점까지의 이수는 내후년도(1962년) 1학기과정까지 계속해야만 끝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입학자를 위해 금년도 가졌던 이들 과목중의 일부가 내년도에 다시 되풀이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토요과정 수강자는 과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총31명이다.

Ⅲ. 동교 사서교사를 위한 8주간과정

1958년이래 매년 하기 및 동기방학을 이용하여서 8주간(하기·동기 각각 4주간씩 도합 300시간)의 사서교사를 위한 과정을 두고 있다, 이과정은 동교에서 문교부와 주한 피바디대학교수단과 공동주최로 우선 사범제통의 학교(사범학교, 사범대학과 동부속학교) 및 문교부 지정 학교의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인데, 금년 여름에 새로 시작한 과정에는 그밖의 일반 중고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이 특색이다. 이과정은 내년도부터 동교 단독으로 일반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위해서 응모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지난 3년간에 걸쳐 이과정을 밟고 나간 교사수는 아래와 같다.

제1회 (1958년)	5명
제2회 (1959, 1—1959, 8)	13명
제3회 (1959, 8—1960, 1)	24명
제4회 (1960, 7—)	31명(1961년1월 수료예정)
계 73명	

Ⅳ. 도협외 도서관실무강습

또하나의 현직도서관원 훈련과정으로 도협의 도서관실무강습회가 있다. 이과정은 주로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공공, 대학 및 특수도서관의 현직도서관원을 대상으로 초보적인 도서관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열흘간 50시간(제1회는 100시간)의 과정으로, 1959년도(제4회) 부터는 문교부와 공동 주최로 개최하여 문교부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금년 수강자수는 72명(53관에서 온), 그중 대학졸업관원의 수강이 36명에 달한다. 예년도 그렇지만 금년도의 커리큘럼은 분류와 편목에 거의 전부의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Ⅴ. 지방별의 강습회

이상의 중앙적인 움직임에 대응해서 지방에서도 도서관강습회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즉 작년에 피바디주최로 광주에서의 전남지방, 대전에서의 충남지방 강습회를 비롯해서 금년도 8월에 부산의 경남 사서교사강습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자가 지난 10월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도 경북지구 사서교사강습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아, 전국적으로 지방별 강습회가 파급될 취세에 있음을 간취했다.

B. 대학과정 및 대학원과정 교육

1.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도서관학과

장래의 우리나라 전문직사서교육 및 도서관학도교육을 목적으로 ICA 원조와 피바디대학교수단의 협조로 1957년에 설치된 동학과는 금년으로 제4차년도에 돌입하여 그 전체학년을 채우게 되었다. 전

학년의 학생 재적수는 100명이며 그중 금년도(명춘 3월) 졸업예정자수는 13명(명년 9월 졸업예정자 3명포함)이다.

II. 이화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및 대학원의 도서관학과

1956년 이래 마이너코스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를 가졌던 동교에서는 작년초(1959년)에 정규과정으로 동교 문과대학과 대학원에 각각 도서관학과를 설치하였다. 금년으로 제2차년에 들어가 현재 학부과정의 도서관학생은 1,2학년생 포함 120명이요 대학원과정은 2년생이 6명(명춘 2월 졸업예정), 1학년이 1명이었는데 1학년생은 지난 2학기부터 휴학하고 있다 한다.

C. 해외 유학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교가 설치됨을 계기로 도서관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하는 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ICA(지금 USOM) 케이스로 피바디대학에 매년 수명씩 유학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명의 현직 도서관원이 떠나고 일방 4명이 귀국하였다. 그밖에 미국무성초청으로 작년에 떠났던 교환사서 2명이 금년 9월에 한국했고 명년에 떠날 1명이 또 선정되어 현재 대기중에 있다. 사비(私費)로도 수명의 미국 유학생이 있다함을 듣고 있으며, 지금 준비중에 있는 학생이 수명 있음을 보았다. ※그전에도 서너명의 해외유학생이 있었긴하다, 즉 이봉순씨, 신재숙씨, 고재창씨의 유학을 들 수 있다.

D. 도서관학 교재

제작년서부터 도서관학에 관한 저서가

점차 나오기 시작하여 도서관학 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금년도의 수획으로는 연초에 나온 도협외의 「도서관용어집」을 필두로하여, 길중환씨 번역의 Akers의 「간이도서관자료목록법」, 경남교육연구소편의 「학교도서관운영과 실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연구소에서 나온 박봉석씨의 「조선십진분류표(KDC)」와 「조선동서목록 규칙(KCR)」의 리프린트, Mr. Burgess의 「분류목록」, 이종문씨의 「국립중앙도서관기구비교」가 있고 연내로 김태을씨 번역으로 Douglas의 「사서교사 핸드북」, 그리고 필자의 「주제명표목록」이 출간될 예정에 있다.

E. 맺는 말

이상에서 본 바 금년도 도서관학 교육의 활동은 도서관계의 어느 분야보다도 활기를 띠었다고 본다.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도서관원(퇴교유자)의 학벌면의 질적 향상이다. 연초에 졸업한 연대도서관학교 1년 특수과정생의 70%가 대학졸업자(학사학위)라는 점은 그전해의 40% 그전전해의 35%의 비율에 비해 약 2배의 백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협주최의 도서관실무강습회에서 도 볼 수 있다. 즉 72명의 수강자중 꼭 50%에 해당되는 36명이 대학졸업자라는 것은 그전전해의 몇배의 비율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도서관원의 질은 2중으로 갖춰지는 셈이다. 그러나 후자의 도서관강습회문제는 생각할 문제로 본다. 해마다 도협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현직 도서관원을 위해 10일간(50시간)의 초보적과정의 강습회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10일간의 강습회로 도서관 전문직을 대

행했다고 보는 것인가. 형식적 의면치레적인 도서관직 교육은 지양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도서관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어, 이를 전문직화하려는 데 대한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수년간의 연속적인 교육과정을 세워 도서관학 전반적인 학과목을 계속적으로 이수케 함이 나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훈련과정은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넘기고 도협에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협의 해결키 위하여 각전문별 문제중심의 워크샵 내지 세미나를 가짐이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니와 우리나라 도서관제도 며칠간의 강습회로 전문적인 기본 교육과정을 치르는 과거의 방법은 탈피해야 될 단계가 도래한 것으로 필자

는 본다.

어쨌든 도서관발전에 큰 장애였던 도서관의 인적요소의 결핍문제는 해소되어 가며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대학내지 대학원과정의 도서관직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올 날이 목전에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서, 아니 그 이전에 성취됐어야 할 도서관의 수요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겠다. 우리나라 독서인구에 비할 때 그들 전문직사서의 수요는 미미한 수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루빨리 도서관법이 통과되어 도서관의 양적 문제만 해결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양과 질이 갖춘 이상적인 도서관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1960, 12, 8 씀)

(필자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韓 國 年 鑑

4294年度版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亭洞二街 72의9

韓 國 年 鑑 編 纂 會